

하나님의 말씀

두 세계 사이의 당신 2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4877 하나님께 도달하는 일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일.....	3
5796 물질을 극복하는 일. 영의 나라.....	5
3712 슬기롭고 온유함.....	6
5565 혼란된 생각. 영적인 위험. 자유의지.....	7
6158 성품의 변화는 단지 내면으로부터.....	8
6194 진지한 경고들.....	9
6329 목표를 향한 추구. 하나님의 도움.....	10
6340 은혜의 수단.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11
3716 게으름의 위험.....	13
5172 이 땅의 삶. 겉보기의 삶.....	14
6338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	15
1933a 이전 단계의 성향이 성격을 정한다.....	16
1933b 유전. 성향. 부모.....	16
5233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17
5136 사탄의 권세.....	19
5825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20
5243 용서. 속죄. 공의. (인과응보의 법칙).....	21
5647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22
3697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	24
5605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일.....	25
5102 영의 학교.....	26
7494 사랑은 생명이다.....	27
6547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28
7496 지도자 예수님.....	30
8865 위로를 주는 아버지의 말씀.....	31

하나님께 도달하는 일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일.

B.D. No. 4877

1950년 4월 9일

사람이 나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내 뜻을 따르려는 최고로 높은 자원하는 자세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나의 원래의 성품과 같아지는 일을 의미한다. 비로소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나를 믿는 믿음이고 전적

으로 나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 사람의 영은 실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절대로 혼자서 능력이 아니라, 단지 나와 연합이 된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다. 사람의 영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의 영에서 나온 불씨이고, 나로부터 나온, 나와 중단되는 일이 없게 연결이 된 나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먼저 사람의 의지에 의해 역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만 한다.

사람의 의지가 나의 의지에 순복해야만 한다. 그러면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사람 안의 영을 깨어나게 하는데 자주 오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기간은 영원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다. 사람의 혼이 이 땅의 과정을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간다면, 혼에게 아무런 결과를 주지 못한다. 왜냐면 혼은 단지 세상에서 살고, 혼은 이 땅의 과정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은 자신 안의 영과 접촉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깨어나면, 비로소 혼이 위로 성장하는 일이 보장된다.

영이 깨어나면, 혼에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자신의 음성을 듣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제 여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두움은 빛에 의해 물러난다. 영은 혼에게 나를 존재로써 설명해주고, 나의 역사와 지속적인 나의 피조물들을 향한 돌봄을 설명한다. 사람 안의 영이 그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설명하거나 또는 그가 이를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에게 전해줄 수 없는 지식을 그에게 전한다. 영이 이제 혼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계속하여 재촉한다. 왜냐면 영이 나의 일부분이고, 혼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혼의 목표가 마찬가지로 나와 연합하는 일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이 나의 성품의 깊이를 영원히 헤아려볼 수 없을지라도, 특정한 성장 정도에 도달할 때 비로소 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인간으로써 나의 성품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빛의 존재로써, 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넘치게 축복될지라도, 아직 나와 먼 간격이 있다. 나의 성품의 깊이를 남김없이 헤아려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빛과 능력 모든 것을 발산하기 때문에, 비록 존재들이 최고로 높은 온전한 정도에 도달했을지라도, 모든 존재들에게 나는 헤아려 볼 수가 없는 존재이다. 나를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나는 온전 함에서 나, 권세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헤아려 볼 수 없는 점이 빛의 존재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게 하고, 항상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를 갈망하고, 항상 자신의 갈망이 성취되게 하는 축복된 일이다. 내가 존재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의 사랑을 증가시킨다. 존재가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를 향한 내 사랑을 가장 큰 선물로 느끼기 때문이다. (1950년 4월 10일) 그러나 나의 피조물은 나와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피조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온전하지 못함이, 피조물의 나의 원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상태가 그를 향한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할 수 없고, 영원히 그를 나로부터 물리치게 하거나 나와 그를 분리시키는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존재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존재는 나와 연관이 되어 있고, 존재는 나에게 속해 있다. 왜냐면 존재가 나의 능력으로부터 생성되었고, 원천적으로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이제 이런 함께 속한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연합이 되는 정점에 도달해야 하고, 나

를 추구하는 일을 통해 축복된 상태에 거하게 되어 한다. 왜냐면 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나의 사랑을 축복으로 느끼기 위해, 존재의 의지가 나에게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존재 안에 어떠한 저항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가 나에게 의해 들어 올려지기 위해 나에게 향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이런 들어 올려지고, 나에게 이끄는 일은 영원 가운데 절대로 끝나지 않을 상태이다.

존재는 절대로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이런 일은 이 땅의 인간으로 너희가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일이다. 그러나 존재의 축복은 지속적인 갈망과 성취에 있다. 존재가 남김없이 만족하면, 더 이상 갈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취되는 축복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갈망 받기 위해 나는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존재들이 최종적인 목표로써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갈망하도록 내가 항상 자극해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나의 피조물들 위에 선다. 왜냐면 나는 중단되지 않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내 사랑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절대로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물질을 극복하는 일. 영의 나라.

B.D. No. 5796

1953년 10월 26일

너희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단지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향해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 나라를 유산으로 받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을 버리는 일을 통해 단지 얻을 수 있고, 내 나라는 물질을 극복하는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 대적자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형체를 벗어나,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가 물질 자체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물질 세계는 내 대적자의 나라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사람은 혼으로써 영적인 존재를 안에 가지고 있고, 대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장단계에 도달하여, 의지를 잘 활용하면, 모든 걸 형체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내 대적자는 사람의 의지를 묶어 두고,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다시 그가 이미 오래 전에 극복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아주 크게 행사한다. 물질의 세계는 너희에게 가장 큰 의지의 시험이다. 왜냐면 너희가 물질의 세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포기해야 하고, 영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 나라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내 대적자의 나라를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내 대적자의 나라는 자신의 재물로 너희를 유혹한다. 그러나 이런 재물이 헛된 것임을 생각하라. 이 재물 자체가 소멸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또는 너희가 죽는 순간에 재물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재물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너희는 거부할 수 없게 일찍 또는 늦게 재물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를 생각하고,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헛된 것이 아닌 재물을 일찍이 얻기 위해,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 가운데 비로소 그의 가치

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혼의 부유함이고 혼을 끝없이 행복하게 해줄 재물을 일찍이 얻기 위해 일하고, 역사하라.

물질을 향한 갈망이 너희가 영적인 재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영적인 재물을 영적인 재물로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안의 모든 생각이 단지 세상을 향해 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영의 흐름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내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세상의 재물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라.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내 사랑의 재물을 모든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굶주리고 포기하라.

아멘

슬기롭고 온유함.

B.D. No. 3712

1946년 3월 13일

스기롭고 온유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기 원하면, 너희는 가장 크게 성공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면, 너희는 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같이 전해야만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같이 머문다. 사랑은 온유와 인내로, 행복하게 해주려는 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는 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이웃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추진력을 느껴야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가 이웃사람들에게 말씀을 영접하도록 재촉한다면, 이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일어나야만 한다. 그는 가장 깊은 확신으로 이웃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그의 열심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저항을 만나, 자신을 관철시키기를 원하여, 나의 역사에 적합하지 않은 심한 말을 사용한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느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가 열심을 내면, 이 열심은 이웃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싸우는, 즉 제거하려는 거짓과 오류에 대항하는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한다. 사탄의 역사로 생긴 일들은 가장 깊은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되게 할 수 있고, 이에 합당하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복음은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내면으로부터 이웃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희에게 거부감을 줄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저항이 너희 인내심을 심하게 시험할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 직분을 아주 슬기롭게 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하는 것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말해야만 하고, 전하는 사람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나와 나의 가르침을 위해 모든 단호함으로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하도록 너희에게 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 열심히 일해야만 하고, 그들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해야만 하고, 이런 일만이 유일하게 내가 기뻐하는, 위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주는 진정한 예배임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은 단지 사랑

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사람들이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한다면,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제 그에게 제공된 말씀대로 살아, 나와 연결을 이룰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럴지라도 온유하게 전해준 가르침은 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일이 이웃사람이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내용을 위해 지나친 열심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온유하고 슬기로우야 하는 일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만한 영을 가진 이웃사람을 만나면, 너희는 그가 대적자인 영의 말을 하는 것을, 그와 싸우기 위해 더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거만한 영을 그 안에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조용하게 나를 부른다면, 나 자신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술에 넣어 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거만한 안락함에 방해를 받아야만 하고, 다른 생각으로 인도받아야만 한다. 부드럽게 하는 말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변화될지, 너희 심장으로 선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너희는 나의 영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영은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 입술에 넣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심장에 주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슬기롭음과 온유함과 나에게 드리는 긴밀한 기도가 확실하게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가 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혼란된 생각. 영적인 위험. 자유의지.

B.D. No. 5565

1952년 12월 26일

사람의 생각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일은 그들이 깨달음이 없는 영적인 위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므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인 위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살기 때문이고, 사랑이 거부할 수 없게 그들을 나와 하나가 되게 하고,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자극을 해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그러나 사랑을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고, 단지 그들에게 사람이 이 땅의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절대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일을 성취시켜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은 사랑이 없이는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이는 사랑이 아니고, 단지 가장 좋은 경우에 사랑인 것처럼 속이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사랑이 어떤 신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성품을 신적으로 만들기 위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 너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다. 그러나 계명이라는 말의 뜻이 강요를 의미하지만, 나는 절대로 작은 강요라도 너희에게 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나는 너희 모두를 자유롭게 놔두고, 너희는 너희 자신에 관한 일을 정할 수 있다. 나는

단지 가르침을 통해 너희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쉬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하고 목표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나고,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되게 한다.

그러나 나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한 내 가르침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주 혼란된 생각 가운데 있어, 단순하고 선명한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 그들의 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고, 영적인 위험이 아주 크다. 왜냐면 사람들의 의지가 자유롭게 머물러야만 하고, 사람들 자신에게 내적인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올바른 설명을 갈망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어두움 가운데 행복하게 느끼고, 사람들은 빛을 갈망하지 않는다. 빛이 그들에게 다가 오면, 이 빛의 비추임이 자신의 심장에 임하게 하지 않고, 거부하고, 길 가운데 모든 곳에서 빛나는 거짓 빛을 향한다.

나는 모든 공황로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내 손으로부터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내 피조물들을 바라 본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 지 바라본다.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간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오르막 길이지만 확실하게 나에게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 나는 나를 구하기는 하지만, 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조언해주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만나기까지 많은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본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헛된 길을 피하게 해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나에게 도달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인도자가 함께 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단지 내 인도하는 음성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 장 28 절)

나는 단지 그들을 부를 수 있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들은 내 사랑의 부름을 듣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이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내 음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내가 바로 영적인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일이다. 실제 도움이 있고, 내가 이 도움을 넘치게 제공하지만,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받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맞이하는 종말을 정한다.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나는 또한 너희를 돕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도움을 주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자유하고, 영원히 너희의 운명을 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품의 변화는 단지 내면으로부터.

B.D. No. 6158

1955년 1월 8일

어떤 외적인 것도 너희의 내면의 삶을 지원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적인 것도 너희 혼이 성장하도록 돕지 않고 완성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단지 내면으로부터 너희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기 위해 너희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너희 안에 아직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주 침묵에 들어가야만 한다. 너희는

실제 외부로부터 이런 혼에 대한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너희는 어떻게 혼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해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온전하게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은 너희 자신이 해야만 한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주어진 의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지라도 단지 모든 외적인 것을 끄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혼에 대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작업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전혀 독립적인 일이고 이 일은 너희의 성품과 너희의 실수와 덕스럽지 못한 점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사람의 내면의 삶과 그의 생각과 의지와 행함에 관한 일이다. 행하는 일이 세상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발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품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 혼에 대한 작업은 너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신적인 목표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과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삶과 온유와 인내와 화평 가운데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모든 좋은 성품을 발전시켜야만 하고 나쁜 생각과 성품들을 너희로부터 몰아내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는 진지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작업은 밖으로 알려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밖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이웃에게 발산되어 그들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게 만든다. 이런 삶이 내면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많은 말이나 형식적인 행동보다 더 낫게 역사한다.

그가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연약한 점과 실수에 대해 묵상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면, 그가 단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가 온전하게 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면, 그는 스스로 이런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의지를 정한 뒤에 또한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진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교파가 축복에 도달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항상 단지 자신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자신 전적을 변화시키고 모든 나쁜 성품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고 이로써 온전하게 되는 단 한가지의 수단인 사람의 의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이런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파는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모든 교파는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파도 완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단지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작업을 통해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진지한 경고들.

B.D. No. 6194

1955년 2월 21일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항상 더욱 너희 자신을 세상의 사슬로 묶고 항상 더 많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항상 더 많은 삶의 즐거움을 탐닉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과 함께 소유할 수 없는 영의 나라가 너희들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너희의 멸망은 너희 자신을 너희 혼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주인에게 바치는 일이고 너희가 금으로 도금이 되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물에 항상 더욱 더 걸려드는 일이다.

삶의 즐거움에 대한 너희의 갈망이 너희에게 죽음을 준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런 갈망을 너희 심장 안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너희를 더 많은 욕망에 빠지게 하고 너희가 세상의 즐거움에 몰두하게 한다. 그는 너희의 육체의 정욕에 불을 일으켜 정욕을 채우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다. 모든 선한 생각은 내 대적자에 의해 쫓겨나고 자기 사랑이 가장 뜨겁게 불타오른다. 사람들은 단지 내 대적자의 말을 듣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사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지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이로써 이 땅의 지배자에게 빠져 있다.

이 땅 위에 깊은 어두움이 덮여 있다. 왜냐면 영의 빛 줄기가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내 대적자가 일하기가 아주 쉽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붙잡고 혼이 눈이 먼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운명을 혼에게 준다. 그는 실제 혼이 이 땅의 삶에서 갈망하는 모든 것을 혼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의 운명은 끔찍하게 된다. 왜냐면 대적자가 혼을 전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이다. 혼은 무능력하게 되고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게 된다. 혼은 짧은 이 땅의 안락한 삶에 대한 대가를 영원 가운데 끔찍한 운명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소개할지라도 그들이 긴급하게 혼들의 원수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이를 듣지 않고 그들의 관점을 돌리지 않고 세상의 영광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으로 향하고 죄가 넘치게 된다. 왜냐면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가 단지 자신을 낮게 만들 수 있고 단지 자신의 육체를 섬기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도 이웃의 생명도 거룩하지 않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심장 안에 빛이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는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행복하게 느낀다.


이 때가 타락하는 때이고 최악 된 때이고 이 가운데 내 대적자가 승리를 경축하는 때이고 내 빛의 일꾼이 작은 영향력을 얻고 지하의 세력들이 단지 성공하는 때이다. 내 대적자는 큰 추수를 하게 되고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간다. 그 어느 때보다 내 포도원 일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로써 내 대적자의 영향 아래 전적으로 빠지지 않았고 그들의 혼이 내 대적자의 희생자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한다.

아멘

목표를 향한 추구. 하나님의 도움.

B.D. No. 6329

1955년 8월 9일

 든 것이 성장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하나님이 너희의 운명을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 혼에게 도움이 되게 모든 일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매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 육체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자주 너희의 삶이 불행하게 보일 것이다. 염려가 자주 너희를 짓누를 것이고 너희는 용기를 잃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도 임의 대로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고 너희 하늘의 아버지

는 모든 것을 알고 그러므로 또한 너희의 환경을 안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그런 환경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너희 형편을 낮게 하거나 또는 나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만과 불쾌함으로 너희의 환경을 더욱 악하게 느끼게 될 수 있고 너희가 불평하기 때문에 두 배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한 분이 너희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의 부름을 항상 기다린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줄 수 있기 위해 이 전에 너희의 부름을 듣기를 원한다. 이런 한 분이 너희를 돕기 원하고 그는 너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비록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할지라도 또는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항상 그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단지 사랑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 단지 사랑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심하게 다루어 사람들이 영원한 기간 동안 멸망을 받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제 아주 큰 그의 사랑에 자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은 곧 위험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곧 모든 염려와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키거나 굳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부터 염려와 고난을 다시 거두어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염려와 고난의 목적에 도달한 것이고 그러면 한 단계 성장한 것이고 그러면 높은 곳을 향한 한 걸음을 옮긴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을 점검해야 할 평안의 시간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계속하여 높은 곳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피곤해져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목표를 향해 고정시켜야 한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그의 이 땅의 과제이다. 그의 추구가 중단되면, 그는 그에게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경고해주는 저항을 통해 즉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지 간에 너희 혼에게 확실하게 최선이 된다.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 상에서 죽은 분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영적인 세상적인 공격을 받는 가운데 단지 그를 부르라. 그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곤경을 안다. 그는 언제든지 너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통해 다시 그와 연합이 됐었고 너희는 예수에게 향하는 길을 가고 예수와 함께 간다. 이 길은 너희를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한다.

아멘

은혜의 수단.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B.D. No. 6340

1955년 8월 27일

아직 은혜의 때이다. 나는 아직 너희 사람들을 모든 수단을 통해 돌이키도록 하거나 또는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전적으로 내 의지 저항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하고 너희 운명에 대항하고 아직 너희의 구원을 도와줄 모든 것에 대항하면, 내 은혜의 수단은 효과가 없게 된다. 그러면 너희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위험에 빠진다. 왜냐면 혼이 영적인 죽음에 빠지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내 뜻을 순종해야만 하고 너희 자신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

를 가진 분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런 저항하지 않는 헌신을 통해 너희의 이 땅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이 너희에게 역사하고 너희 혼에게 성공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때가 종말의 때이다. 내가 사람들이 아직 돌아서고 완성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험이 큰 때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운명에 맡겨 둔다면, 즉 자유롭게 염려가 없는 비참함이 없고 곤경이 없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한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단지 성장하려는 내적인 동력이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너희 혼은 확실하게 멸망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와야만 한다. 나는 단지 내가 도움이 축복을 주는 것으로 깨달은 대로 너희가 생각하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심하게 대하면서 너희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종말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시간이 급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와 교제하면서 이 땅의 길을 가고 그가 자신을 나에게 속하게 한다면, 이로써 어찌 하든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이런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의 이 땅의 운명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이 땅의 삶을 그가 쉽게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그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도움의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나에게 아직 저항하는 동안에는 그는 단지 짐을 느끼게 되고 내 도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그에게 향하고 그를 얻기 원하고 단지 은혜의 수단이지만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 수단은 단지 내 피조물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졌고 이런 목표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피할 수 없게 너희에게 주어지는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고통에 비하면, 이런 고난과 시험은 얼마나 적은 것인가! 언제든지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돕기를 원하는 나는 고난과 위험을 통해 너희가 단지 나에게 돌아오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힘이 드는 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자신에게 부르는 한 분을 알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외친 분의 부름을 따르라. 너희 혼의 구원에 도움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도 금하지 않는다.

내 자녀들의 무리에 속하라. 너희 자신의 의지나 반발로 이 무리를 벗어나지 말고 아직 나로부터 멀리 있는 너희는 나에게 다가오라. 너희의 저항을 포기하라. 왜냐하면 나와 함께 너희의 길을 가는 일이 진실로 훨씬 쉽고 훨씬 아름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힘들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내 길은 단지 세상을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너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너희를 영접하게 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이다. 단지 짧은 이 땅의 길이 너희 앞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짧은 길을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나에게 내 인도에 맡겨라. 너희는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너희 모두의 아버지를 따른 일로 인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종말의 때에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일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무관심하게 종말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쉬지 않고 너희에게 주어진 대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일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하는 일에서 단지 유익을 얻고,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 유익을 절대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큰 위험의 결과로 사람들의 일에 동참하도록 강요하여, 사람들이 활발히 일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전적으로 떠난 사람들만이 안락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진실한 사람은 극심한 위험과 싸워야 하며, 세상적으로도 싸워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들은 나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활동력 있게 유지시키기 원한다. 나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의 도움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로써 그들이 나를 떠날 위험에 빠지기를 내가 원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여, 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일이 그들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보호한다. 왜냐면 일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이웃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인 동안에는, 사람의 혼에게 축복을 준다. 위험한 때가 이웃사람들을 돕는 일을 요구한다. 나에게 속한 사람은 아주 활동적인 되야만 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땅의 나의 일꾼들은 이 일을 행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모든 노력을 축복할 것이고,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돕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짓누르는 위험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갈 것이다.

왜냐면 믿음의 능력이 계시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도움이 먼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 전에 가장 큰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역사하고, 영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를 추구하면, 나의 영적인 세력들이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한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영의 나라를 돌아볼 수 있다. 그는 언제든지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고,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사람을 그의 능력에 맞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에 세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짧게 보일 것이다. 반면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시간을 더 길게 만든다. 게으름은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공도 주지 못한다. 지하 세계의 권세자가 게으른 사람을 소유하고, 세상약속을 통해 그를 유혹하고, 그가 그의 이 땅의 실제 과제를 벗어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아주 자원하여 이 유혹을 따른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삶의 형편을 낮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게으름을 진지하게 경고한다. 나는 지나치게 사랑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는 모든 행하는 일을 축복할 것이고, 나의 축복은 영적인, 세상적인 위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도움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일하라.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라.

모든 행하는 일이 생명임을 생각하라. 생명의 상태를 일찍 끝내지 말라. 너희에게 흐르는 생명의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라. 그러면 영적 능력도 증가될 것이다. 너희는 종말의 때까지 견딜 것이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방향 안에서 너희는 나

의 뜻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나의 보호와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삶. 겉보기의 삶.

B.D. No. 5172

1951년 7월 17일

이 땅의 삶은 단지 겉보기의 삶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다면, 너희는 높은 곳을 향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너희는 이제 너희 혼의 물질적인 겉 형체인 너희의 육체를 벗을 때, 혼이 자유롭게 영의 나라로 올라가면, 비로소 시작되는 실제적인 존재의 삶을 위해 일한다. 이 땅에서 너희의 눈 앞에 생성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성취해야 할 형체를 입은 영적인 입자들이다. 너희 안의 혼이 자신이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으면, 이 땅의 삶 자체도 단지 순수하게 육체적인 기능에 불과하게 된다.

혼이 이 땅의 삶 동안에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혼은 실제 삶의 실상을 더 많이 믿고, 이 땅의 삶에 유일하게 큰 의미를 두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잘 살기를 구한다. 깨달음의 순간에 비로소 이런 소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들은 실제의 삶을 의식하고 실제 삶이 가치를 얻게 되는 정도로 이 땅의 삶이 후퇴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겉 모양과 실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그들이 겉모양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지를 증명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생명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이 주어졌다. 이로써 실제 삶에서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왜냐면 실제의 삶이 이런 능력을 비로소 활용하게 되는 일이고, 혼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일이고, 광범위한 정도로 구속하는 일을 위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험의 삶의 실패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그들은 실제 삶에서 능력을 공급받는 길을 잃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이 능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영의 나라에서 능력을 받고 사용하는 존재로서 합당하게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에 도달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이 땅의 삶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 자체에 목적인 있는 것으로 여기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잘못 사용한다.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자신의 때가 오면, 이 땅의 날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음을 알지라도, 이 땅의 삶을 유일하게 갈망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그에게 아주 귀하게 보이는 것의 가치 없음과 허무함을 그가 깨달아야만 하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중을 준비해야만 하고, 허무하게 되는 법칙 이래 있는 것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은 단지 겉보기의 삶이고, 언제든지 돌려줘야만 하는 어떠한 빌린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은 빌린 것으로 잘 경영해야 한다. 그는 빌린 것을 활용하여 그에게 풍성한 이자가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물질적 이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한 것이고, 시험기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영의 삶을 위해, 영원히 지속이 되는 실제의 삶을 위해 합당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

B.D. No. 6338

1955년 8월 22일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사람들 가까이에 다가 갔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에게 말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너희의 삶의 길에 내 인도를 제공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희귀하게 깨닫는다. 너희는 내 분명한 인도를 우연으로 여기고 내 음성은 너희의 귀를 스쳐 지나 가고 너희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눈이 나를 지나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돌봄은 너희를 뒤따른다. 너희가 세상의 요동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는 너희 편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를 내 보호 아래 두는 순간을 기다린다. 나는 너희가 세상에 대한 욕망 가운데 너희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너희를 뒤따르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살피는 순간을 기다린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계시해주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비록 성공이 단지 아주 적고 성공을 거의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나에게 다가오려는 가장 작은 의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더 이상 그의 편을 떠나지 않고 비록 너희가 가장 큰 무관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고 나와 연결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듣도록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말은 단지 작은 소리이고 재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말씀을 쉽게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내 말은 세상의 음성이 크게 울리는 것처럼, 이로써 너희의 전적으로 주의를 받는 것처럼 크게 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스스로 나에게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드러나게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작은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외롭고 연약한 가운데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부드럽게 너희를 길로 인도한다. 이로써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너희에게 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너희 중 어느 누구도 그가 나를 아직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동안에는 내가 그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종말의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더욱 짧은 길을 가야만 하고 이 길은 가기가 더 많이 어렵고 힘들다. 왜냐면 나는 그들이 내 인도를 필요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내 인도를 구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운명적인 일들이 증가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많은 위험과 처량함을 통과해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비록 내가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발자국을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삶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들의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내 자극이 항상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자극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내가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한때 영의 나라에서 맞이할 운명을 정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고 자유롭게 머물기 때문이고 심지어 내 아주 큰 사랑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는 그의 의지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전 단계의 성향이 성격을 정한다.

B.D. No. 1933a

1941년 5월 25일

인간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단계는 어느 정도 모든 곁형체의 단계에서 가졌던 영적인 존재의 상태에 합당하다. 존재들은 실제 항상 자신 안에 아직 최고로 강하게 남아있는 저항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자신 안의 악한 충동과 싸워야만 한다. 존재가 이 전의 단계에서 광란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이런 충동이 특별히 강하게 발전된다.

이런 이 전의 단계의 성향이 이제 존재에게 그의 특징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제 이런 충동에 특별히 강하게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반면에 이 전에 자원하여 자신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한 사람은 쉬운 삶을 기뻐하게 된다. 존재가 아직 곁형체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섬기려는 의지에 합당하게 자유롭게 된다. 이런 저항하지 않는 존재는 이제 외적으로 이미 존재의 자원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형체 안에서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곁 형체는 항상 사람이 곁 형체를 통해 그의 혼의 성장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같은 특성을 가진 혼의 입자들이 이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가운데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혼의 입자들이 연합하고, 이 전의 형체에서 했던 같은 방식으로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존재가 빠르게 부족함을 극복할수록, 더 적게 저항을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이 전의 단계에서 인내가 있고, 자원하고, 열심이 있게 될 수 있다. 존재가 이런 충동을 자신 안에 유지한다면, 존재는 인간으로써 똑 같은 충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성격을 정한다.

아멘

유전. 성향. 부모.

B.D. No. 1933b

1941년 5월 29일

사람의 이 땅의 과정은 그의 성향에 합당하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은 실수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혼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실수와 부족함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한다. 모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혼의 입자들이 다른 형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어떠한 좋은 또는 나쁜 특성을 약하게 또는 강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성품이 전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좋은 것을 지원해주고, 부족하거나 또는 악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극복하도록, 서로 다른 양육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모든 혼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을 때에 똑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영접하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사람들의 성품이 서로 다른 것을 유전에 근거를 둔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짐을 져야만 하고, 실제 그들의 성품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성품의 특징을 짊어 져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따르면, 자신의 죄가 없이 유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선천적인 실수와 싸우고 극복하는데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혼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실수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 안에 특별한 충동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부모의 성향이 사람의 성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인간으로 단계 이전의 끝없이 많은 육신을 입을 일이 자신의 특성이 되게 했고, 이 특성 가운데 존재가 행복하게 느끼고, 이러한 실수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명해져야 한다.

존재는 이제 이 땅에서 실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연약하다. 존재는 자신의 연약함을 좋은 권한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부족함을 자신의 책임이 없이 받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려는 일은 그의 자유의지이다.

바로 이러한 같은 존재가 육신을 입으려는 혼을 끌어드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돌보아야 하는 혼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혼들이 스스로 위로 성장하기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일은 절대로 이웃사람이나, 육신의 부모가 대신해줄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들의 성향에 대한 책임이 없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육신의 부모의 보호 아래 맡겨져 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가 한때 지은 죄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B.D. No. 5233

1951년 10월 12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들과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의 모든 존재들과 내가 내 사랑과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는 일이 영원한 법칙이다. 모든 존재가 내 아래 있는 속하는 일이 법칙이다. 그러므로 내 권세에 제한이 없고, 나는 내 의지로 생성한 것을 마찬가지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지배자이다. 그러나 창조할 때에 사랑뿐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참여했고 그러므로 나는 제멋대로 파괴하지 않고, 내 아래에 있는 존재를 영원히 유지시킨다. 그러나 나는 존재가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즉 내 형상이 되도록 성품을 바꾸어 주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존재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들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로써 그들이 그들의 신적인 점을 의식하고, 빛나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으로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까이 다가 간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을 영접하려는 모든 의지를 알고, 내 사랑이 그런 의지에 합당하게 피조물들에게 역사한다. 사랑이 있는 피조물은 나에게 다가 오고, 사랑이 없는 피조물은 나를 떠나고, 내 사랑은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랑은 반응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조물이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나를 구하고 나를 추구하는 피조물은 다시 말해 영원한 자신의 주님과 창조주에 대한 갈망을 가진 피조물은 사랑의 단계에 있다. 그러면 내 사랑이 이런 피조물에게 임하고, 응답을 받는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그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순복하고, 이제 변화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를 닮은 존재로 형성될 수 있다. 즉 내 손에서 나온 작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처럼 만드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단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내 권세로 생성된 작품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이런 역사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를 이해하는 일은 그가 어떤 깨달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미 거하고 있는 신적의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의 깨달음의 정도는 증가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지속이 될수록,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신적인 성품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신적인 것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신적인 존재의 축복과 내 형상의 축복은 빛과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능력을 항상 내 사랑의 영 안에서 활용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순수한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빛과 능력이 없는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것이다. 신적인 존재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존재이다. 모든 금지와 모든 제한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존재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든지, 사랑이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항상 같은 정도로 깨달음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깨달음과 사랑은 부인할 수 없게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룬 영적인 성장이 단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깨달음과 사람의 심장과 이성이 영접할 지식을 함께 주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일은 높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사다리이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즉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에 지속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면, 그는 단계 단계 사다리를 올라간다. 사랑이 모든 것을 생성되게 동안에는, 사랑이 창조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그러나 사랑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 영원한 원래의 법칙이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과정은 피조물이 완성해야만 하고 또한 완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의 능력이 불씨로써 그들 자신 안에 존재하고, 단지 내 원래의 성품을 증명하는 같은 모든 권세를 갖기 위해 점화되기 만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 피조물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과 닮게 만들 수 있다. 빛나는 빛처럼 모든 연관관계들이 너희에게 계시되었고, 단지 사랑이 이를 수 있는 너희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사랑의 삶의 결과를 알게 되는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너희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원래의 성품에 항상 가까이 다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가 순복해야만 하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랑으로 자신의 자녀인 너희를 품 안으로 이끄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너희 안에서 다시 찾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느끼고, 이 축복이 너희에게 또한 제공된다. 그러면 모든 세상적인, 영적인 창조의 기초가 된 법이 성취된 것이다.

아멘

사탄의 권세.

B.D. No. 5136

1951년 5월 25일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자의 권세는 크다. 그러나 단지 너희 자신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야 그의 권세가 크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그에게 저항하고 나에게 향하면, 내 사랑의 빛이 너희에게 흘러가 그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는 사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를 패배시킬 것이다. 사탄은 진실로 그의 의지를 통해 그러나 내 힘으로 생성한 존재를 자신에게 묶어 영원히 복종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잃어 버릴까 두려워하는 존재와 자유의지로 그를 벗어나기 원하는 존재와 영원히 나와 연합하기 위해 나를 추구하는 존재를 최대한 압박한다.

(1951년 5월 25일) 그는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는 항상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거할 것이고, 비록 그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그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에 개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를 원수로 나를 대적한다. 왜냐면 그의 야망이 너무 커서 그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고 믿을 정도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사랑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하는 무기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는 사랑이 그의 길을 가로막는 곳에서 도망치고, 그에게 단지 아주 작은 기회라도 제공이 되면, 사랑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부채질한다.

그는 자신의 권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패배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의 역사는 대부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없다. 왜냐면 그의 수단은 항상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기게 하는 일이고, 선명함이 지배하는 곳에 혼란이 생기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사람들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작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을 통해 사탄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사탄은 모든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항상 더 큰 사랑이 없는 일을 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곳에서 단지 큰 권세를 갖는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사랑을 너무 적게 행하기 때문이고, 너희의 자기 사랑이 아직 너무 강해 그에게 그가 환영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나타나도 너희는 그를 깨달을 수 없고, 너희의 시력이 약해지고, 너희는 그를 친구로 여기고 그에게 너희의 신뢰를 제공한다. 그가 아직 나의 대적자인 동안에는 그는 너희의 친구가 아니고, 그에게 사랑이 전혀 없는 동안에는 그는 내 대적자이다.

너희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는 그는 두려워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그의 소유이고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안의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이면, 너희는 너희를 묶어 두는 속박을 풀고 너희의 주인을 바꾸고, 나와 연결을 이루고, 그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나에게 향하고 그를 거부하는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나에게 속하게 된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너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도울 수 있다. 즉 너희가 불타고 있는 석탄을 그의 머리 위로 모으고,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에게 사랑을 행하고, 사랑으로 악에 대응하면서 그를 도울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그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고, 너희가 가장 밝은 빛과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넘어서는 성장을 한 존재의 권세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존재를 생각으로 자유롭게 풀어준다. 즉 그런 존재는 더 이상 그의 괴롭힘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 그가 나와 하나가 된 존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심장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다. 사람을 묶고 있는 사슬을 모든 사람이 사랑을 통해 풀 수 있다. 사랑은 동시에 구원하는 수단이고 연결시키는 수단이고, 너희를 내 자녀로 만들고, 내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의 응답하는 사랑을 받고 그러므로 영원히 축복되게 된다.

아멘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B.D. No. 5825

1953년 12월 13일

세상에 조공을 바치는 일은 하늘 나라를 포기하는 일과 같다. 왜냐면 사람이 두 나라를 동시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은 또한 하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에게는 단지 자극적인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들은 이 나라의 밖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 나라를 향하는 길은 이 땅의 세상을 통해 가야만 하고, 이 세상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한 나라인 이 땅을 통과하는 자신의 마지막 성장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를 극복할 수 있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인상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세상을 통과하여 갈 수 있다. 그는 세상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을 극복하는 일이 너희의 과제이다. 왜냐면 세상은 바로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하는 목적과 혼이 자유의지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는 목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졌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동시에 이 세상의 지배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고, 자신을 영의 나라에게 드리는 일이고, 자신의 주님에게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후에도 절대로 영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고, 사람이 스스로 세상의 지배자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자가 그를 가두고 있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스스로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추구하고 완성해야만 하고,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을 추구하고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만 한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포기하는 것을 천 배로 보상해주는 모든 영광을 가진 영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위해, 단지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유혹에 저항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단지 이 땅에서 그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음과 지속성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단지 이런 깨달음이 자신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능력을 그에게 줄 것이다. 만약 그가 단지 물질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가 변화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체험을 통해 내적인 관찰을 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성공을 할지는 그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은 헛된 것을 항상 또 다시 증명해주는 정도로 그를 도울 수 있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붕괴되게 하는 정도로, 그가 사람의 내면에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정도로 그를 도울 수 있고, 항상 단지 그에게 그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려 주기 위해 그의 심장이 연연해하는 것을 그에게서 빼앗는 정도로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의지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고, 한때 영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벌을 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굴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추구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역사가 나타난다. 세상을 추구했다면,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임하고 그러면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영의 나라를 포기한 것이고, 세상이 그에게 죽음을 준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새롭게 깊은 곳에 있는 권세에게 넘겨지고, 높은 곳을 향한 길을 가는데 다시 끝없이 긴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아멘

용서. 속죄. 공의. (인과응보의 법칙)

B.D. No. 5243

1951년 10월 27일

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공의도 내 성품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온전함이 의문시될 것이고 이로써 내 신성이 의문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지를 이해하느냐? 모든 특성이 나에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 자신이 만든 영원한 질서의 법칙 아래에 있다. 즉 나 자신이 내 온전함으로부터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 공의가 충족되려면, 모든 죄짐은 댓가를 치러야만 하고, 모든 죄는 속죄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점이 이제 내 사랑과 긍휼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원할 정도로 무한히 깊은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내 사랑이 한 방법을 찾았고, 사랑 자신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속죄함으로써 죄짐을 없앴다.

한 사람이 죄를 짊어졌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 속죄를 했다. 나는 이 사람을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가 이 일을 하게 했고, 사랑이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면,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속죄가 사랑으로 나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내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긴 것이 되었을 것이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가 사랑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한 일은 내 영접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십자가의 아주 극심한 고통과 죽음으로 인류의 큰 죄짐을 속죄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죄짐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사랑이 그가 드리게 한 자신의 제사를 통해 그는 나와 화해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희생제사를 받아들였고, 그의 사랑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짐을 예수의 발 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의 죽음때문에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의 희생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은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수의 희생은 아주 컸고, 인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주 강력해서 내 공의가 충족되었고 이제 내 사랑과 긍휼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가운데 그의 십자가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실제로 행해야만 일을 완전히 취소받는 일이고 이로써 상환이 이뤄지는 일이다. 용서는 삭제하는 일이고, 짐을 내려놓는 일이고,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죄의 모든 결과는 죄를 지은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나에게 속죄를 행했다. 죄의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내 사랑과 긍휼은 모든 것을 다시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먼저 공의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였다. 이 땅에 저질러진 모든 불의와 한때 나를 대적한 죄는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만 했다. 즉 존재들이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고 이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인간 예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렸고, 축적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초인간적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죄의 결과를 약화시키고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그러므로 법이 폐지되지 않았고 단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 사함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과 긍휼이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역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했고, 사람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아주 컸고, 내가 이런 사랑을 통해 완전히 속죄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B.D. No. 5647

1953년 4월 9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돌발 길을 가게 하고, 그를 거의 짓누르는 짐을 지게 한다. 그러나 항상 단지 그에게 최선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십자가의 짐은 자신의 운명을 인도하는 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으면, 그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은 실제 모든 그의 피조물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목

표에 더 이상 멀지 않게 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한다. 그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각각의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 있는지 알고, 이에 합당하게 그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를 대한다.

이를 통해 너희가 단지 자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자주 어려운 삶의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왜 좋은 지를 안다.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깨달을 것이고, 반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여 있음을 알 것이고, 운명의 다시 바뀌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이 땅에 실제 많은 고난이 있다. 이러한 고난 아래 인류가 짓눌리며,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에게 양육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어려움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 단지 순복해야 할 때에 반항한다. 하나님의 도움은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한다.

사람들이 이 말을 실제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항상 단지 육체를 행복하게 하는 일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위험과 고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고난이 진실로 효과가 있는 양육의 수단임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고난은 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고난의 축복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이 땅의 세상으로부터 물러서게 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자주 사용하고, 그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렁 속에서 세상 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일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보기를 더 좋아한다.

그는 질병과 고통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혼에게 어떠한 영적인 성공도 제공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혼이 세상을 먼저 뒷전에 뒤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이를 위해 그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사람 자신이 운명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혼을 망하게 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세상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물러서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부른다면, 그에게 실제 도움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고, 대적자는 실제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절대로 댓가가 없이 주지 않는다. 이 댓가가 혼을 그에게 양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위험과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에 너희 머리를 숙이고, 너희의 눈을 단지 그를 향하게 하라. 그는 너희에게서 십자가를 벗겨, 대신 질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의지가 없이 너희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은혜가 충만한 인도에 의탁하면, 그가 너희 십자가를 쉽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항상 단지 고난과 위험을 통해 자신을 위해 너희를 얻기 원하는 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혼을 정화시키기 원하고, 너희에게 항상 단지 너희가 너희의 인내와 온유를 시험해볼 기회를 준다. 이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볼 수 있게 다가오고, 그의 사랑이 볼 수 있게 개입한다. 그는 또한 올바른 때에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

B.D. No. 3697

1946년 2월 25일

너희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나온 계명과 가르침을 통해 너희 혼의 성장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단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그러므로 내가 계명이 지혜롭고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깨달아 사람들에게 준 계명을 성취시키는 것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계명이 나의 사랑의 계명과 일치한다면, 그러므로 계명이 단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한다면,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이라면, 이 계명은 나의 동의를 받는다. 왜냐면 그러면 나의 영이 이러한 계명을 만든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다른 계명은 나의 눈 앞에 가치가 없고, 나는 이런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냐면 이 땅에서 혼이 성숙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능력을, 남김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너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성취시키지 않는 것이 사랑을 어기는 것이 아닌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을 통해, 은혜가 너희에게 흐르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대한,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자신의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사랑은 그가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을 행하도록 재촉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대한 사랑으로 어떠한 외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구실을 댈다면, 나는 그런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는 단지 너희가 사람들로 부터 약속된 보수를 받기 위해 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유일하게 사랑의 역사를 통해 심장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할 수 있고, 유일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아니다. 모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외적인 형식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 만을, 비록 이런 사랑에 외적인 형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일이 나의 사랑의 계명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기 원하고, 나를 향한 의지를 알려 주는 긴밀한 기도를 원한다. 그러면 단지 너희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왜냐면 기도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외에는 다른 은혜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삶이 어떠한 걸로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는, 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외적으로 나를 고백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따르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나의 가르침을 고백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믿는, 나의 이름과 나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을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즉 이웃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너희 생각과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를 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너희는 자신을 나의 추종자로, 나의 올바른 자녀로 증명해야 한다. 즉 너희의 삶이, 전달자로서 너희에게 나의 뜻을 알려 줘야 할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위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말씀

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에 합당해야 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성취시키기 원하면, 너희의 역사는, 내가 언젠가 영원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역사가 항상 되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역사가 너희 혼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외적인 관습과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일.

B.D. No. 5605

1953년 2월 18일

너희는 죽은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려서 그들에게 생명력 있게 해줘야 한다. 너희는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내 능력으로 심장에 감동을 줘야 한다. 나 자신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는 능력은 내 말이다. 이로써 너희가 중계자로서 내 말을 전하게 하고, 내 능력이 또한 아직 영이 죽은 자들에게 내 능력이 임하게 한다. 너희는 어떠한 귀한 것을,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내 말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사랑으로 내 말을 전해야만 한다. 도우려는 의지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 것을 전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큰 어두움이 모든 곳에 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으로 죽은 혼들이 거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빛을 의미한다. 단지 사랑의 열기를 발산하는, 즉 굳어진 혼을 살아나게 하는 빛 줄기를 받은 혼만이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다. 사랑의 빛이 이런 죽은 혼에게 임해야만 한다. 그러면 혼은 확실하게 생명으로 깨어난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내 말씀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면서, 사랑과 빛의 비추임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말씀은 내 사랑과 은혜를 통해 너희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치료할 능력이 있는 생명수이다. 이를 통해 너희의 혼이 건강하게 되고, 혼은 올바른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혼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많은 무덤에서 머물고 있는 혼들이 비록 그들의 생각이 아직 이 땅에서 거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짓누르는 어두움 속에 있는 혼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너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죽음의 밤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효과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지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 자신의 능력과 빛의 비추임이 단지 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 내 말을 가지고 있다.

나의 말이 단지 사람들의 귀에 들어 가는 동안에는, 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왜냐면 혼만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사랑의 능력으로 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는 문을 단지 사랑이 열어준다. 너희가 이러한 죽은 혼들에

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면, 너희가 모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면, 너희 사랑이 나에게 문을 연다. 너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 생각하라.

너희는 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전파하게 하면, 나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하기 원한다. 어느 곳이든지 빛을 어둠 가운데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저 세상의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죽은 이웃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기 원하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혼들은 생명으로, 빛으로 깨어날 것이다. 혼은 더 이상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영의 학교.

B.D. No. 5102

1951년 4월 9일

만약에 너희가 빛이 충만한 축복된 영적인 존재로서, 내 뜻과 일치되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영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원하면, 너희 모두는 영의 학교를 졸업해야만 한다. 너희에게 이런 영의 학교는 이 땅의 삶이다. 이 땅의 삶이 실제 자주 너희를 견딜 수 없게 짓누른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단지 너희의 영적인 완성을 추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너희를 짓누르게 하지 않고, 이 땅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너희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자신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단지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런 짧은 과정이 영원을 위해 결정적임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 땅의 짧은 기간 동안이 너희에게 자유 의지로 결정하는 일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양쪽 편에서 역사한다면, 비로소 너희가 결정을 할 수 있고, 한쪽 편에서 너희에 대해 승리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를 위해 너희 자신이 인간으로서 싸우는 일을 요구받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의 완성은 단지 너희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비록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모든 방식으로 내 지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얻기 원하고, 너희를 잃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인도하여 사람이 올바르게 자신의 의지의 결정하면, 이 땅에서 영의 완성에 도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그가 어떠한 위험 가운데 패배할 수 있는 지를 알고, 그가 이런 가능성을 피하게 한다. 그럴지라도 그가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인해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운명은 항상 최고로 가능한 완성에 도달하는 일을 돕기에 알맞게 된다. 이 땅의 삶은 단지 짧은 기간이다. 비록 가장 힘든 운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고난은 그가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만들 수 있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나의 한 피조물이라도 그의 운명에 임의대로 맡겨두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항상 지속적으로 돌본다. 왜냐하면 나는 영의 학교가 성공적인 학교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항상 영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는 내 뜻이 아니면,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어떠한 일도 허용되지 않음을 항상 의식하면, 그는 항상 생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내 뜻을 자

기 자신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나는 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버지이고, 영적인 또는 세상적인 위험 속에 단지 작은 도움을 청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사랑이 충만하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가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단지 너희의 최선을 원하는 한 분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왜 그 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 분에게 너희의 고통을 아뢰지 않느냐?

세상적인 위험이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지 말고, 이 위험이 너희를 나에게 이끌게 하라. 그러면 진실로 이 위험이 너희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십자가 지는 일을 돕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는 너희의 영적인 완성을 돕는 것으로, 나의 지혜로운 결정과 깨달음이 너희가 운명적으로 짊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면 내 뜻에 조용하게 순복하는 일은 이미 너희가 행한 올바른 의지의 결정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대항하지 않고 너희의 저항을 포기하고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의 학교를 가장 크게 성공적으로 졸업한 것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은 쉽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은 생명이다.

B.D. No. 7494

1960년 1월 4일

너희는 사랑 안에서 단지 진실 된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랑은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선 사람은 생명 가운데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 안에 내 원래의 성품이 거해야만 한다. 사랑이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면, 너희는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없음으로 인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내 능력을 계속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생명은 내 능력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내 뜻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로써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머물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자신에게 충만한 능력을 내 뜻대로 사랑과 생명은 나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의 뜻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이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가 사랑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되고 축복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는 상태인 생명을 증명해주는 능력을 나로부터 계속하여 받으면, 이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이 전적인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비록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고 세상 일을 더 이상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혼은 더 이상 묶임을 받지 않았고 그의 자유 가운데 진실 된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효과 보다는 영적 효과를 줄 역사를 행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이 땅의 삶이 매일 낮아 질 수 있는 육신의 삶의 정도만을 단지 높이면, 이 땅의 삶은 죽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죽음의 상태가 육체와 혼에 임하면, 생명을 영원히 잃는다. 혼

의 생명을 위해 돌보아야 한다. 이는 단지 혼에게 능력을 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올바른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 일어 날 수 있다.

사랑만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 너희 혼은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 생명의 상태에 거하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생명의 상태에서 혼은 이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일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항상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의 내 뜻대로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아직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무기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혼들의 구속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육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혼은 이런 일을 행한다. 왜냐면 혼은 육체와 관계없이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해 한번 생명에 도달한 혼은 이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사랑만이 진정한 생명이 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 너희는 생명의 상태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 너희는 영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고 창조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면,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능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항상 더욱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아직 진정한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을 위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한다.

너희가 이런 혼들에게 행하는 일은 너희 자신이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이다. 이런 모든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생명은 계속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게 한 일이 너희와 너희의 생명을 증거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와 연합을 통해 이미 생명은 찾지 못했으면, 내가 너희 안으로 계속하여 부어주는 능력의 흐름이 없었다면, 너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게 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는 내 뜻대로 일할 것이다. 이 가운데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되고 영의 나라에서 축복될 것이다.

아멘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B.D. No. 6547

1956년 5월 15일

너희가 넓은 길로 가고 이 전에 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질문하지 않고 대중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거론할 만한 성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단지 너희의 책임을 대중을 이끌고 가는 너희의 이웃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믿고 단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은 그의 이 땅의 길에서 갈림길에 도달할 것이고 몇몇의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동행자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어느 길로 향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의 삶의 마지막까지 단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머물렀다면, 그는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이 그들의 구성원에게 축복에 도달했다는 보장을 절대로 해줄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축복을 추구하고 도달해야만 하고 사람에게 실제 축복되기 위한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자신을 위해 가야만 한다.

소위 인도자가 요구하는 일을 항상 단지 행하고 이런 일이 의식적인 혼에 대한 작업이라고 믿는 일과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인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은 큰 오류이다. 인도자가 요구하는 것을 시험해볼 수 없게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영접하고 인도하는 자가 진리로 내세우는 것을 믿어야 하는 일은 더 큰 오류이다. 어떤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래야 비로소 오류가 들어오면, 그가 오류를 발견하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해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일을 전적으로 모두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영접해서는 안 되고 그는 자신을 잘못 인도한 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갈라지는 길을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길을 마찬가지로 가던 길과 같이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항상 서로 다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질문해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눈을 땅으로 향하게 하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갈림길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는 그의 잘못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주변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는 눈이 먼 사람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에게 이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생각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이성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대중이 가는 길이 절대로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왜냐면 대중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인도를 받고 그런 길은 절대로 진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대적자가 이 땅에서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사람들의 죄악성과 사랑없음과 영적인 저조한 상태를 통해 인류에 대한 대적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기 원하고 너희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면, 너희는 대중 가운데 함께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고 대중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방향을 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길을 밝혀 주기 위해 빛을 가지고 앞서 가는 일꾼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만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항상 너희 안의 더 밝은 빛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 혼의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너희의 염려하지 않는 자세를 버리라. 다른 사람이 너희를 위해 돌보게 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 혼을 위해 너희 자신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는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과 연결을 이루려고 시도하라. 그를 너희의 인도자로 선택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라. 왜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대리자는 항상 단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자신과 연결을 이루도록 알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 대리자는 너희의 책임을 넘겨 받고 너희에게 단지 눈먼 순종과 그들 스스로 만든 계명을 성취시키기를 요구할 것이다.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스스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비록 길이 오르막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기를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올바른 인도자를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확실하게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지도자 예수님.

B.D. No. 7496

1960년 1월 8일

너희가 나를 너희 지도자로 택하지 않으면, 너희 길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인가? 너희가 항상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내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가지 않고 목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떠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의지에 반대해 이런, 저러한 길을 가게 하거나 또는 가지 않게 너희의 의지를 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모든 곳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부탁받기 원한다. 나는 모든 평탄하지 않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게 나에게 부탁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내 인도에 맡기길 원한다. 나는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앞서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길 원한다. 왜냐면 단지 급경사이고 힘이 들고 능력이 필요하고 튼튼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단 한가지 길 만이 목표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1960년 1월 8일)

단지 내가 항상 너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곧 더 이상 잘못 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이 잘못 된 길로 인도할까 봐 너희의 연약한 능력으로 인해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앞서 가면,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 길을 짧게 해주고 모든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장애물을 넘게 너희를 옮겨주고 너희 손을 잡아 너희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 없이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너희는 잘못 인도받을까 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보다 나은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이웃들 가운데 아무리 신실한 친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가 높은 곳의 나에게 인도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어떤 염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한번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신뢰에 대한 상급을 주고 너희의 이 땅의 길을 내 보호하는 돌봄 아래 두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르막길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

다. 왜냐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손을 잡을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대로 힘들이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평탄한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목표는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나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서 가거나 또는 너희에게 접근해 너희의 길을 치장하고 유혹하는 수단으로 가득 채워 너희가 높은 곳을 가는 길이 아니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잘 이해하는 내 대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삶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귀환의 길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귀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깊은 곳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인도하는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은 나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게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하는 일은 끔찍하게 어렵고 다시 끝 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지도자로서 이 땅의 삶 동안 너희를 맡아주길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로 여기는 나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 행하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너희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와 다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위해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위로를 주는 아버지의 말씀

B.D. No. 8865

1964년 10월 10일

만약에 너희가 단지 조건 없이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너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운명을 내 손에 두고 너희가 나를 향한 신뢰를 한만큼, 너희는 받을 것이다. 연약한 믿음은 그러나 내가 기쁘게 돌보고 싶은 대로 너희를 돌봐주는 일을 막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해야만 한다. 특히 나를 섬기려고 하는 너희는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항상 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에게서는 모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인도해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해야 할 너희의 포도원역사를 위해 좋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나 스스로 너희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함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내 의지에 따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함을 너희는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결정을 쉽게 만들어 줄려고 한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이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아직 많은 일이 행해지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능력을 제공해 줘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내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오류들을 발견해 내고 이에 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적극적으로 영적인 내용을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이를 전하려는 신실한 종이 필요하다. 왜냐면 영적인 위험은 항상 증가되고 사람들은 긴급하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잘못 된 가르침을 거절하지만 잘못 된 가르침과 함께 올바른 가르침도 거절해 어떤 믿음도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너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너희의 세상적인 필요한 것들도 제공해 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충분할 것이다. 언젠가 너희는 비록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지만 너희의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가를 체험할 것이다.

저세상에서는 너희의 역사가 빛의 비추임을 통해 볼 수 있게 나타나고 이 곳에서는 빛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 비록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는 일이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여기에서 능력과 빛을 얻는 자들의 수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을 모든 육신과 혼의 위험을 통과하게 하고 내 손을 절대로 그들에게서 빼내지 않을 것이며 단지 그들이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 모든 불편한 상황들이 너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너희는 단지 항상 너희를 위해 분명하게 보호를 해주는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주는 내 선한 아버지의 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내 도움은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 더욱 드러날 것이다.

아멘